

韓國兒童의 親戚名 認知

Cognition of Korean Kinship Name : Investigating the Children's Recognition of Cognate Group Ranges

李 順 炯 *
Yi, Soon Hyung

ABSTRACT

The cognition of Korean kinship names was examined in children in the 1st, 3rd, 5th, and 9th grades (N=188) of public school. The task consisted of 43 items which identified the relative relationships of cognates and cognates-in-law.

It was found that the main effects of age and residential area on cognition scores were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variables were also significant. As expected, older children performed the task more precisely than the younger children and children in Seoul performed better than in outlying regions. Under 15 years of age, the scores in Seoul were higher than in Andong, but at the age of 15, this trend was reversed. The gap between residential areas under 15 years of age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cognitive ability and test effects, but the gap at 15 by culture.

I. 問題提起

歷史가 시작된 이래로, 兒童의 發達을 研究하는 學者들이 가지는 根本的 물음은 兒童의 認知能力이 과연 自發的으로 開發되고 發達하는가, 아니면 環境이 許容하는 틀에 맞추어 發達되는 가를 밝히는 데 있다.

前者를 주장하는 典型的 學者는 J. Piaget로서, 그는 認知的 씩이 스스로 發芽되고, 주변의 事物에 同化, 調節過程을 거쳐서 適應해 나간다고 말한다(1969). 그는 또래와의 相互作用 自體도, 他人에게서 教育되고, 知識을 받는 것이 아니라, 自己의 思考를 비추어 주는 反射鏡의 役割로 간주한다.

그러나 많은 教育學者들과, 家族學者들은 兒童의 認知가 家族의 社會經濟的 地位, 父母의 養育態度, 父母와의 意思疎通 및 文化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주장한다(서봉연·유안진, 1982; Bernstein, 1971; Spradley, 1972).

이 論爭은 前者는 주로 心理學者들의 見解로서, 그들의 視野는 인간 심리의 深層的 分析에 制限되어 있으며, 社會體系의 影響에는 關心을 주지 않고 있으며, 後者들은 스스로, 學問의 境界를 넘

* 덕성여자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전공이 다른 학문간 학제적 연구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表面的 理由를 학자들의 연구경향에서 찾지마는 實際的 理由는 研究課題 자체의 국한된 特性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학제적 연구주제는 個人的 深層的 精神作用을 分析해낼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文化나 環境과 밀착되어 있는 課題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親戚名은 학제적 연구의 좋은 과제가 된다. 친척명에는 어떤 種族이 世上에 존재하는 事物을 자신들의 認知圖에 집어 넣을 때, 그 象徵에 따라 級間化¹⁾ 하고 範疇化²⁾ 하는 過程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을 種族科學論者³⁾ 들이 分析한 바 (Goodenough, 1967; Hammel, 1965; Wallace, 1962)나, 親戚關係의 論理的 範疇로서 兒童의 問題解決過程을 分析한 心理學者的 研究(Piaget, 1928)는 接近方法은 각각 다르지만, 親戚名을 통해서 각 領域間 研究結果를 補完한 可能性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種族科學者들이 제시한 親戚名의 틀은 心理學的 分析方法을 도입했을 때 다른 인지과제보다는 親戚名 課題 자체가 지니는 環境의 영향이 더욱 더 드러날 것이므로, 文化的 環境의 영향을 比較할 수 있는 좋은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는 親戚名, 群集概念의 課題를 사용하여 文化環境의 比較가 可能한 두 地域에서 兒童들이 어느 級間까지 親戚名을 認知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밝히려고 한다.

II. 先行研究

1. 文化와 認知

20C 후반에 文化와 認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문화인류학자들이 種族科學論⁴⁾이라는 分析方法을 사용하여, 言語 중 限定된 일련의 用語를 分析하여 質적으로 種族간에 認知差異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Goodenough, 1956; 1967; Frake, 1976; Sturtevant, 1964).

언어권의 差異에 따라서 親戚名을 比較分析한 연구자들 (Burling, 1965; Goodenough, 1967; Hammel, 1965; Kessler, 1976; Lounsbury, 1971)은 以前的 研究者들이 주장한대로, 文化마다 語言가 다르다는 사실은 表面的으로는 곧 種族마다 思考方法 자체가 다르다 (Whorf, 1956)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지만은 言語라는 媒介體를 사용하여 사물을 공동적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규칙 자체는 普遍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假定은, 다음과 같은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즉, 文化란 사람들이 그들의 現象의 世界에서의 經驗을 構成하는 方法 (Goodenough, 1956, 62)으로서 하나의 象徵의 體系 (Parsons, 1951)라고 定義될 때, 어떤 文化가 事物을 知覺하고 그 사물의 屬性을 추출한 후 그것을 자신이 체험한 經驗의 한 斷片으로써 分類하려는 것은 몇 가지 나름대로의 基準을 必要로 한다. 이 기준은, 한 文化가 經驗한 바와 事物을 보는 觀點에 따라서 다소 달

註 1) classification

2) categorization

3) ethnoscientist

4) ethnoscience

라질 수 있다. 즉 英語는 行動이나 狀態의 時制에 관심이 많은 言語인데 비해서, 韓國語는 事物의 形容에 관심이 많은 特性을 지닌다는 點 등이다. 이와 같은 文化的 差異에도 불구하고 文化가 事物로부터 획득한 象徴을 言語化하는 象徴의 相互作用過程(Blumer, 1972)은 몇 段階를 거치는데, 이 過程은 술한 個人差에도 불구하고, 마치 人間의 認知的 思考過程의 段階에서 나타나는 바가 同一하듯이 文化마다 類似하다(Bruner, Goodnow and Austin, 1972; Frake, 1976; Spradley, 1976).

2. 認知課題로서 親戚名の 構造

親戚名の 分析方法에는 親族類型別 分類方法⁵⁾과 成分分析法⁶⁾이 있다. 親族類型別 分類方法은, Murdock의 著書, 「社會의 構造(1949)」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어떤 言語든지 原始的 象徴을 이루는 用語로 範疇化되어 있다는 가정아래 親戚名을 基本單位語로써 分類하는 方法이다.

成分分析法은 1950년대 후반에 心理學에 관심을 가진 文化人類學者들(Goodnough, 1956; Wallace and Atkin, 1960; Wallace, 1962; Burling, 1964; Hammel, 1965)에 의해서 使用된 方法으로서 親戚名 자체의 意味分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言語文化圈에 속해있는 集團의 認知的 規則을 밝혀서(Wallace, A., 1962), 親族類型 分類法의 妥當度를 높이고, 文化別로 比較하려는 目的에서 이루어졌다(Burling, 1965; Hammel, 1965).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法律的 關係를 제외하고 血緣關係만을 본다면, 美國의 親戚名은 15개⁷⁾ 뿐이다. 이들 15개의 親戚名을 親族類型別 分類法에 따르면, 親族의 原始的 單位形態로서, Fa, Mo, Br; Si, So, Da를 基本으로 그들간 關係를 표시하였다. 즉 grandfather는 FaFa이고, aunt는 FaSi, Mosi, FaFaSi, MoFaSi 등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成分分析法에 따르면, 英語의 親戚名은 3개의 論理的 規則으로 形成되었으며, 그 규칙을 각각 다른 次元으로 定義할 수 있다는 假定(Wallace, 1962)아래 그 論理的 規則을 찾아내었다.

세 가지의 規則은 A) 性別(男1·女2) B) 世代⁸⁾ 그리고 C) 系列⁹⁾이다. 세 가지 要素로서, 親戚名을 再構成해 보면, grandfather는 $a_1 b_1 c_1$, aunt는 $a_2 b_1 c_2$, $a_2 b_2 c_2$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라다임을 도식화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註 4) Ethnoscience

5) Kin-type notation

6) Componential Analysis

7) grandfather, grandmother,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son, daughter, grandson, granddaughter, uncle, aunt, nephew, niece, cousin

8) 두세대 위(b_1) 아래(b_2), 한세대 위(b_2) 아래(b_4), 동일세대(b_3)

9) lineality, 直系(c_1), Colineal(c_2), ablineal(c_3)

	c_1		c_2		c_3	
	a_1	a_2	a_1	a_2	a_1	a_2
b_1	Grand father	Grand mother			Cousin	
b_2	Father	Mother	Uncle	Aunt		
b_3		Ego	Brother	Sister		
b_4	Son	Daughter	Nephew	Niece		
b_5	Grand son	Grand daughter				

<그림 1> 성분분석에 따라 분류한 미국의 친척명
(출처 ; Wallace and Atkins, 1960)

이 그림에서 b_1, b_2, b_3, b_4, b_5 는 世代로서, 時間的 거리의 區間을 의미한다. c_1, c_2, c_3 는 血緣의 系列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成分分析論者들의 目的은 親戚名의 構造에 單順한 基本法則을 상정하고, 親戚名이 그 規則의 核心을 要素로 하는 組合의 思考의 結果라는 假定을 經驗的 資料를 통해서 立證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數學的 論理上, 2가지 要素로 된 可能한 組合의 數는 4개이다. 일례로, 性別과 世代(上·下)의 可能한 組合數는 4가지로서 父, 母, 子, 女의 네 下位集合을 이룬다. 그렇다면, 性別(2) × 世代(5) × 系列(3)의 組合은 30가지로 계산된다. 이것은 經驗的 現實을 無視한 假想的 下位集合의 數이다. 이 數에다 美國의 親戚名을 이루는 下位集合數를 比較해 보면, 英語의 親戚名 자체의 未分化를 알 수 있다. 부연하면, 組合의 思考에서 可能한 分化程度에 실제로 英語의 親戚名이 分化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는 因戚사이에 時間的, 空間的 거리를 同時에 考慮하여, 보다 具體的이고 正確한 代數값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數를 計算해 내려는 假定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英語의 親戚名은 단지 세 群으로 分類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代數計算은 곤란하다 (Kim, 1967).

그러나 韓國言語의 親戚名¹⁰⁾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血緣에 의한 集團인 內家만을 따로 分析

註 10) 우리나라의 親戚名은 16개의 基本單位語¹⁾와 結婚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親戚, 즉 配遇者를 가리키는 4개의 수식어²⁾ 또 世代를 나타내는 3개의 수식어가 結合되어 使用된다.

1) 父, 母, 子, 女, 兄, 弟, 姊, 妹, 伯, 叔, 姑, 姊, 祖, 孫, 姪

2) 女男, 夫, 孀, 婢, 婦

3) 高, 曹, 玄

해 보면, 親戚名은 世代(b), 性別(a)과 系列(c)에 따라서 分類됨은 물론이려니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세 範疇의 組合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되는 用語가 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系列을 中心으로 '나' 보다 또는 기준이 되는 人物보다 上下를 나누어, 序列(d)를 따른다. 더욱이 그들의 配遇者(e)도 함께 고려된다.

이와 같은 韓國의 親戚名은 여섯 개의 次元에서 각각 分類될 수 있는 바, 性別(a), 世代(b), 系列(c), 序列(d), 配遇者(e)와 親族集團(f)를 추축으로 親戚名의 도식^{11) 12)}을 그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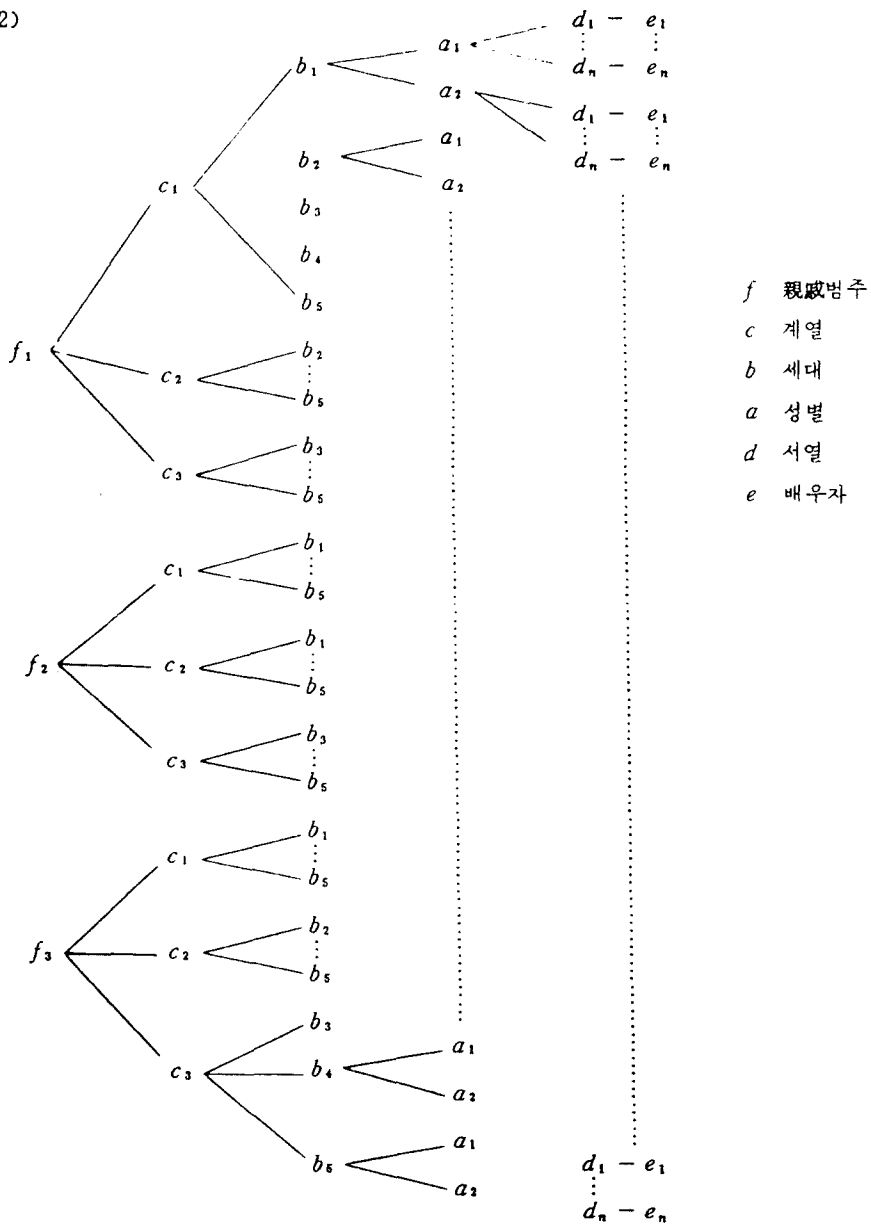
주 11, 12에서 보듯이, f_1, f_2, f_3, a_1, a_2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원소를 모아보면 범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a_1, b 와 c_1 을 동시에 고려하여 세대별 원소를 모으는 작업 — 즉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 자, 손자, 증손자 등 —은 시간의 경과라는 조건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는 순열조작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a, b, c 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접해 있는 몇 개의 원소간 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群集課題를 조작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한국의 친척명과제는 친척구성원간 관계를 통하여, Piaget가 제시한 인지적 조작 즉 범주, 순열, 군집 조작이 가능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註 11) 성분분석법에 따라 분류한 한국의 親戚名

세대	계열		c_1		c_2		c_3	
	성별		a_1	a_2	$a_1(e_2)$	$a_2(e_1)$	$a_1(e_2)$	$a_2(e_1)$
b_1			증조부	증조모	종증조부 (종증조모)	증대고모 (증대고모부)		
b_2		3	조부	조모	종조부 (종조모)	왕고모 (왕고모부)	재종조부 (재종조모)	재종고모 (재종고모부)
b_3		2	부	모	백부 (백모)	고모 (고모부)	종백부 (종백모)	종고모 (종고모부)
b_4		1	나		형수 (형수)	누나 (매형)	종형수 (종형수)	종자형 (종자형)
b_5		1	자	녀	질자 (질질부)	질녀 (질녀서)	종질부 (종질부)	종질녀 (종질녀서)
b_6		2	손자	손녀	종질부 (종질부)	종질녀 (당질녀서)		
b_7		3	증손자	증손녀				

e_1 남성배우자 e_2 여성배우자

註 12)



3. 群集概念의 發達

Piaget의 이론(1949;1966;1969)에 따르면, 8세 아동이 사물의 범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동이 級間的의 加算을 통해서 群集概念化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群集概念은 곧 形式的 論理의 屬性인 數理·論理的 操作能力을 의미한다.

그런데 數理와 論理가 같은 것은 아니다. 數理는 Piaget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검사 결과의 수량화 같은 것이 아니고, 심리적 過程의 非數量的 數理로서 특징지워진다. 論理도 어떤 體系 내에서 關係를 지배하는 規則을 가지고 이론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수리·논리적 구조는 곧 認知的 構造가 된다.

數理와 論理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群集¹³⁾이다(Flavell,1963,163). 群集은 群¹⁴⁾과 lattice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群은 구성, 연합, 구분, 가역 등의 조작이 언제나 참(眞)인 구성원소들로 구성된 추상적 概念이다. lattice는 원소들간에 위계와 급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geq 라는 상징기호의 조작이 가능한 개념이다. 따라서, $A+B=B$, $A \cup B=B$ 또는 $A+B=A$, $A \cup B=A$ 의 수식이 성립된다.

Piaget는 논리적으로 급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모두 9가지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 대한 假說을 세웠다. 그중에서 군집Ⅳ는 對稱的 關係의 加算으로서 그는 친척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A) X \overset{a}{\leftrightarrow} X \quad (X=X \text{ 라면})$$

$$(B) X \overset{a}{\leftrightarrow} Y \quad (X \text{가 } Y \text{의 형제이고})$$

$$(C) X \overset{a}{\leftrightarrow} Z \quad (X \text{가 } Z \text{의 사촌이라면})$$

$$(D) X \overset{b}{\leftrightarrow} Y, X \overset{b}{\leftrightarrow} Z \quad (X, Y, Z \text{는 동일한 할아버지를 두고있다})$$

또는 $(X \overset{a}{\leftrightarrow} Y) + (Y \overset{a}{\leftrightarrow} Z) = X \overset{a}{\leftrightarrow} Z$, $(X \overset{a}{\leftrightarrow} Y) + (Y \overset{b}{\leftrightarrow} Z) = X \overset{b}{\leftrightarrow} Z$
 X, Y 가 형제이고 Y, Z 가 형제라면, X, Z 가 형제이어야만 한다 등등의 수리·논리적 조작으로서 모든 친척관계가 범주와 위계의 규칙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群集課題는 範疇課題와 마찬가지로 具體的 操作期 兒童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수의 수량적 분석을 제외하고, 아동의 응답에 대한 質的分析을 했을 때, 明白한 形式的 論理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Piaget & Inhelder, 1969).

形式操作期에 이르면 群集概念은 群과 群간에 수리·논리적 조작이 가능하며, 조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조합에 서열이 첨가된 순열조합도 가능하다(Piaget, 1966). 이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逆操作能力으로서, 급간의 조작을 거꾸로 되돌이켰을 때, 처음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인지적 조작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 군집Ⅳ의 가설에 대한 經驗的 研究(Flavell, 1962, 194)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자료에 의한 증명을 요구한다.

註 13) grouping.

14) group.

4. 兒童의 認知發達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兒童의 認知發達은 內生的 要因과 養育環境, 두 要因에 의해서 說明된다. 前者는 外部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타고난 能力이 자발적으로 發達되어 나간다는 見解로서, J. Piaget가 이 理論을 주장하는 典型의 人物이다. Piaget에 따르면, 兒童의 認知發達은 身體的 成熟의 바탕 위에서 兒童과 事物사이의 相互作用, 즉 經驗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經驗은 身體的 經驗이 되어 그 속성을 추상화시키며 - 예를 들어, 부피에 상관없이 두 사물의 무게를 比較하는 것 등- 또한 經驗은 數理論理的 經驗이 되기 때문이다(Piaget and Inhelder, 1969, 154~159).

물론 Piaget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또래 사이에 이루어진 相互作用이 兒童의 認知發達에 도움이 된다(Piaget & Inhelder, 1969, 156)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想定하는 家族環境이나 社會環境의 影響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後者는 家族마다 아동에게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 줄 수 있는 刺戟의 種類와 量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환경에 따라서 아동의 認知發達水準에 程度差異를 보이게 된다는 주장이다(Bernstein, 1971; 유안진, 1983). 부연하면, 아동이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 課題에 더 많이 接하고, 觀察學習을 해온 경우에 그 課題를 더 잘 遂行한다는 것이다.

以上の 先行研究에서 살펴 보았듯이 文化人類學者, 心理學者들이 認知에 관해서 研究해 온 바는, 거의 同一한 課題를 통해서 假說을 세우고 그를 檢證한 것이다. 즉 親族科學論者들이 연구해 온 親戚名의 認知的 分析은 兒童의 論理的 推論能力課題(Piaget and Inhelder, 1928, 74~77)와 동일하다.

그러나 두 接近方法이 相異한 까닭인지, 文化人類學者들은 다른 種族들을 對象으로 全般的으로 分析을 하였으며, 心理學者들은 인지자체의 深層的 分析에만 치우쳐 試驗자가 속해있는 環境의 影響이 무시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는 範疇과 級間으로 나누어져 認知課題로서 적합한 要件을 갖추었을 뿐더러, 그 스스로가 文化 및 家族環境에 밀착되어 있는 親戚名을 課題로 선정하여, 兒童이 認知하는 親戚 級間的 範疇를 밝히고 아울러 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年齡과 環境의 獨立된 影響 또는 두 變數間 相互作用의 效果를 밝히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假說은 아래와 같다.

- 1) 아동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아동의 親戚名獲得點數는 差異를 보일 것이다.
- 2) 아동의 年齡에 따라서, 아동의 親戚名獲得點數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3) 居住地域과 兒童의 年齡이 同時에 고려될 때, 兒童의 親戚名獲得點數는 差異를 보일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調查道具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設問은 43개의 問項으로, 7개의 級間을 포함한 課題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어떤 사람(A)과 다른 사람(B)의 關係와 더불어 반드시 B에게 A가 무엇이 되는지, 즉 可逆

的 認知를 물었다. 각 문항은 傳統的 親戚名의 分析方法을 이용해서, '○○의 ○○의 ○○는 누구 입니까?' 의 文章으로 作成되었다. 文章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형, 아우, 누나, 누이동생 이외에 다른 어떤 친척명도 사용되지 않았다.

2. 研究對象

研究對象으로서 國民學校는 大都市인 서울의 강북지역에 있는 中流階層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國民學校와 典型的으로 傳統을 지켜온 村落인 河回마을에 있는 豐川國民學校의 아이들을 選定하였다. 그리고 中學校는 서울의 강북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안동의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學年別 연구대상수는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인원수

지역별 학년별	서울	하회 · 안동	계
1 학년	20	8	28
3 학년	20	20	40
5 학년	20	20	40
중 1 학년	20	20	40
중 3 학년	20	20	40
합 계			188

이들중에 풍천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는 총인원 9名중 그중에 言語障礙를 보이는 어린이 1名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8名밖에 되지 않았다. 성별로는 국민학교는 조사대상이 남·여 동수로 구성되었으나, 중학교는 여자중학교의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3. 調査方法

국민학교 1학년 兒童은 글을 읽고,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面接調査하였으며, 3, 5학년 어린이는 自筆로 設問에 應答하도록 하였다.

面接調査는 훈련된 大學生 4名에 의해 行해졌다.

4. 資料處理

본 論文의 資料는 1983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주일에 걸쳐서 設問調査되었다.

資料는 精確한 親戚名을 쓴 경우(叔母, 伯母 등)에는 2점을 주고, 아주머니 등 막연히 應答한 경우에 1점을 주어, 서울대학교 電子計算所에서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研究者가 統計處理하였다.

구체적 조작기인 7세 아동을 보면, 삼촌급간까지는 30% 이상을 알고 있으며, 사촌급간부터 그 이상의 친척명은 인지하지 못한다. 평균연령대인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보면, 삼촌급간은 50%선, 사촌급간은 30%선을 인지하고 있다. 형식적 조작기인 15세 아동은 삼촌급간을 90%, 사촌급간을 65%쯤 인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에 따라서 인지급간이 점차 확대되어 감을 뜻한다.

그러므로 Piaget가 주장한 가정, 즉 친척명은 群概念으로서, 구체적 조작기에 獲得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서도 획득되어 나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親戚名은 群概念으로서, 응답자와 심리적으로 가깝고 접촉이 많은 群集團은 일찌기 획득되지만, 거리가 먼 群은 늦게 획득되는데, 친척명은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 단번에 인지되는 과정이 아니고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점차 인지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地域, 年齡에 따른 總點數

內家8寸, 外家4寸까지의 親戚名을 모두 포함한 43개 設問의 點數를 합한 總點數를 二元變量分析한 結果 地域別로 0.1%의 水準에서 높은 差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두 集團間 平均點數를 볼 때, 서울에 居住하는 兒童들은 하회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2, 3).

<표 2> 全體認知點數의 平均

학 년 지 역	국 1 (N=28)	3 (N=40)	5 (N=40)	중 1 (N=40)	중 3 (N=40)	계
서울	20.75	24.70	43.80	50.40	48.70	37.67(100)
하회·안동	11.00	24.35	18.45	40.90	51.85	31.81(88)

(M = 34.93, SD = 16.21)

<표 3> 全體 認知點數의 變量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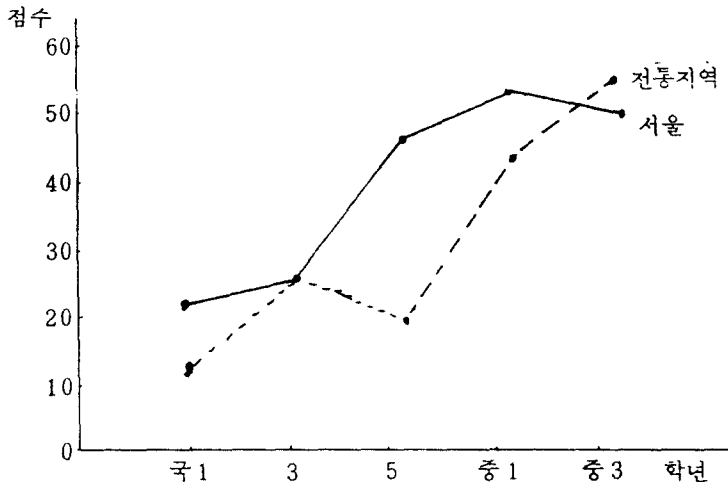
변 량 원	SSE	df	MSE	F
지 역	3096.126	1	3096.126	38.827 ***
연 령	28471.561	4	7117.890	89.262 ***
지역 × 연령	4876.263	4	1219.066	15.288 ***
오 차	14194.008	178	79.742	
계	49150.965	187	262.839	

*** P < .001

年齡別로全體親戚名認知點數는 0.1%水準에서 현격한點數差異를 보였다. 이事實로부터,親戚名課題 자체가年齡別認知發達을 잘 보여줄수 있는 적절한認知課題임을 알수 있다.

地域과年齡變數를同時에 고려했을 때,相互作用效果도 0.1%水準에서有意했다. 즉 그림 3에서처럼, 두 지역의 아동들은 3학년까지는 인지점수가 완만한上昇을 보이는데, 서울의 5학년아동의 경우에 급한 상승분을 보이다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오히려 하강한 데 반해서, 하회아동은 5학년 때下降하였다가 중학교 때 급상승하여, 서울아동의 점수를 상회하는 樣相을 보였다. 5학년때 하회아동의 인지점수가 하강한 것을 제외한다면, 一의미있는 큰 차이가 아니므로— 하회아동의 인지점수는 꾸준한 상승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며, 중학교 3학년에 이르면, 서울아동의 점수보다 높아서, 전통지역의 경험빈도에 따라 인지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상정된 본 연구의 가설을 긍정하게 된다. 그런데 하회아동의 점수가 중3때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곧認知自體의 差異가 아니고, 지적 자극이 적은 주변환경과 더불어 이와 같은 검사에 대한 경험부족으로부터 오는檢査效果로 판단된다.

<그림 3> 地域과年齡別全體認知點數의相互作用



2. 地域 및 年齡變數에 따른親戚範疇別分析

先行研究에서 살펴 보았듯이親戚名은 3개의 群으로 나뉘며, 각 群당 世代와 系列, 그리고 序列을 고려한 級間이 있는데 이것이 寸數로서 區間된다. 따라서 級間別, 즉 寸數別로 研究結果를 提示하겠다.

1) 三寸級間的 認知點數

內家の 伯父, 叔父, 高모 등을 묻는 4問項과 外家の 三寸과 姊母를 묻는 4問項을 합한 8問項의

응답을 합한 認知點數는 地域과 年齡變數 그리고 두 變數의 相互作用에 따라서 모두 0.1% 水準에서 상당히 큰 差異를 보였다(표 4, 5). 三寸級間認知點數의 地域差가 컸는데, 하회보다 서울의 아동의 인지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인지정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지역과 연령을 同時에 고려했을 때, 역시 3학년까지는 두 지역의 점수가 비슷하게 증가하나, 그 이후 서울의 경우 급상승하고, 하회의 경우에는 감소하였다가 중학교에 이르러 다시 증가한다(그림 4).

<표 4> 三寸級間的 認知點數 平均

지역 \ 학년	국 1	3	5	중 1	3	계
서울	4.05	5.10	9.00	11.20	10.95	8.06(100)
하회·안동	0.38	4.30	3.30	8.95	10.50	6.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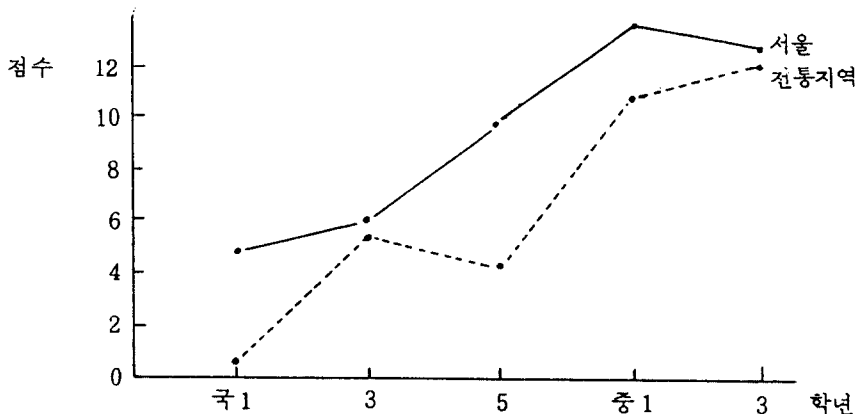
(M = 7.18, SD = 4.06)

<표 5> 三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變數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279.322	1	279.322	49.172 ***
연령	1729.805	4	452.451	76.129 ***
지역 × 연령	181.803	4	45.451	8.001 ***
오차	1011.126	178	5.680	
계	3087.852	187	16.513	

***P < .001

<그림 4> 地域과 年齡別 三寸級間點數의 相互作用



이 결과를 다시 內家の 三寸과 外家の 三寸級間으로 나누어 보았다.

內家の 三寸級間을 묻는 4개의 質問에 대한 응답은 地域別, 年齡別로 0.1% 水準에서 有意했으며, 두 變數間 相互作用効果도 0.1% 수준에서 유의했다(표 6, 7). 즉 三寸間級에 관한 認知點數는 全般的으로, 아동의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아동의 點數가 하회아동의 것보다 훨씬 높아서, 하회아동들 응답한 어느학년 점수도, 서울의 1학년 점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중학교 3학년에 가서는 두 지역의 인지점수가 같다. 또한 두 變數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서울아동의 인지점수는 3학년에 5학년 사이에, 1:昇勢를 보인데 반해서 하회아동의 點數는 오히려 하강하였다가 중학교에 가면 서울의 점수에까지 도달한다(그림 5).

外家の 三寸級間을 묻는 4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역시 지역별, 연령별, 또 두 變數間 相互作用에 따라서, 모두 F값이 0.1% 水準에서 意味있게 높았다(표 7, 8). 外家の 三寸에 대한 인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보면, 서울아동의 점수가 하회아동의 것보다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에 가면, 하회아동의 점수가 더 높았다(표 7, 8). 두 變數가 같이 고려되었을 때, 3학년 兒童인 경우 하회아동의 점수가 높았고 나머지 두 학년의 경우, 서울아동의 點數가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다시 전통지역의 점수가 서울보다 높아졌다(그림 6).

<표 6> 內家の 三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平均

학 년 지 역	국 1	3	5	중 1	3	계
서울	3.95	4.70	7.10	7.90	7.70	6.27(100)
하회·안동	0.38	3.60	3.20	7.15	7.70	4.9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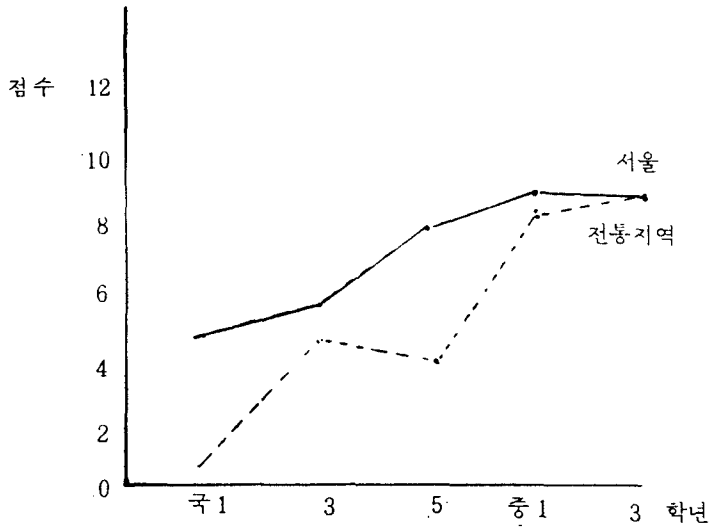
(M = 5.65, SD = 2.74)

<표 7> 內家の 三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變量分析

변 량 원	SSE	df	MSE	F
지 역	132.844	1	132.844	43.183 ***
연 령	667.940	4	166.985	54.282 ***
지역 × 연령	110.013	4	27.503	8.940 ***
오 차	547.575	178	3.076	
계	1406.527	187	7.522	

*** P < .001

<그림 5> 地域과 年齡別 內家의 三寸級間點數의 相互作用



<표 8> 外家의 三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平均

지역 \ 학년	국 1	3	5	중 1	3	계
서울	2.80	2.70	6.10	7.10	7.35	5.21(100)
하회, 안동	0.50	3.30	1.30	6.60	7.75	4.3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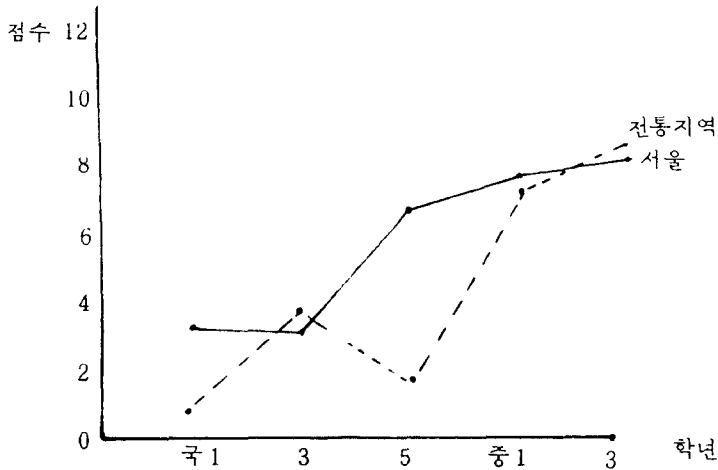
(M = 4.81 , SD = 3.03)

<표 9> 外家의 三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變量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68.950	1	68.950	20.438 ***
연령	880.791	4	220.198	65.271 ***
지역 × 연령	199.378	4	49.845	14.775 ***
오차	600.501	178	3.374	
계	1715.107	187	9.172	

*** P < .001

〈그림 6〉 地域과 年齡別 外家의 三寸級間點數의 相互作用



한편 可逆的 思考能力을 檢査하려는 것으로, '나' 는 三寸級間에 속해있는 親戚들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물었다. 그 結果, 內家든 外家든 三寸級間의 親戚과 자신의 關係를 認知하는 程度는 地域과 年齡別로 意味있게 나타났다. 親家의 경우, 지역별에 대한 F 값은 15.314로 0.1% 수준에서, 연령별로는 F 값 35.907로 역시 0.1% 수준에서, 두 變間間 相互作用은 F 값 4.407로 0.1% 水準에서 有意했다(표 10, 11). 서울아동이 하회아동보다 친척명과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더 높았으며, 1학년인 경우 三寸과 自身에 대한 關係를 잘 認知하지 못하고 있으며, 5학년이 되어서 서울아동의 약 절반정도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外家の 三寸級間과 자기의 關係를 인지하는 水準은 地域別, 年齡別 그리고 두 變數間 相互作用에 따라 0.1% 수준에서 有意했다(표 12, 13). 즉 연령의 增加에 따라 認知程度는 증가했다. 또한 地域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아동이 하회보다 三寸과 자신의 關係를 훨씬 잘 알고 있는데, 親家보다는 外三寸과의 關係를 더 인지하는 것은 大都市에 外戚과의 接觸이 더 빈번하다고 지적인 研究(최 재석, 1981)와 相通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四寸級間的 認知點數

四寸級間的 親戚에 대한 認知點數는 地域別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年齡別로는 F 값 29.102로 0.1% 수준에서, 그리고 두 變數間 相互作用效果는, F 값 4.255로 1% 水準에서 有意했다(표 14, 15). 즉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촌급간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점수는 증가했다. 그런데, 地域과 年齡別을 같이 고려해 보면, 1학년때 두 지역의 親戚名 認知點數는 같았으나, 3학년에는 하회아동의 점수가 더 높다가 5학년이 되면,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나

<표 10> 內家內 三寸級間의 可逆性點數의 平均

지역 \ 학년	국 1	3	5	총 1	3	계
서울	0.10	0.40	1.90	3.30	3.25	1.79(100)
하회, 안동	0.00	0.70	0.10	1.80	2.80	1.23(88)

(M = 1.53, SD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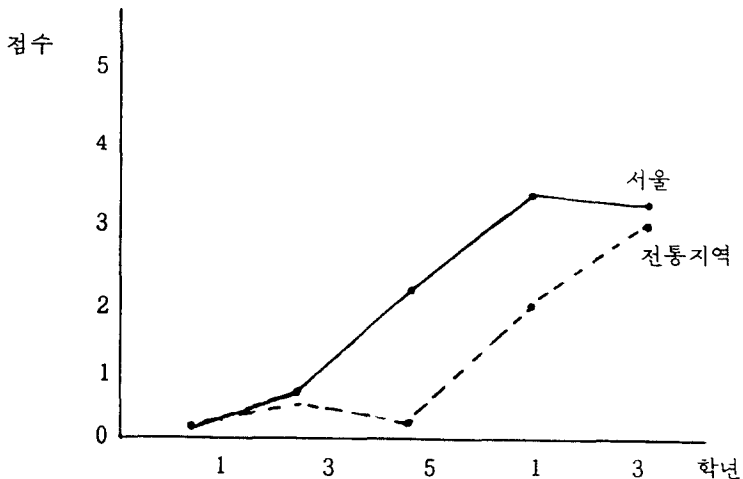
<표 11> 內家の 三寸級間에 대한 可逆性點數의 變量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26.906	1	26.906	15.314 ***
연령	252.319	4	63.080	35.901 ***
지역 × 연령	30.976	4	7.744	4.407 **
오차	312.750	178	1.757	
계	610.867	187	3.267	

** P < .01

*** P < .001

<그림 7> 地域과 年齡別 可逆性點數의 相互作用



<표 12> 外家の 三寸級間の 可逆性點數의 平均

지역 \ 학년	국 1	2	3	중 1	3	계
서울	0.00	0.20	2.60	2.50	3.10	1.68(100)
하회, 안동	0.00	0.20	0.00	1.25	2.60	0.9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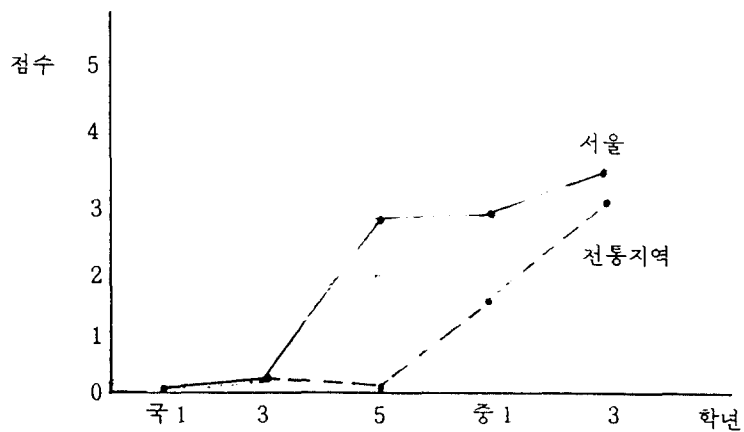
(M = 1.32 , SD = 1.83)

<표 13> 外家の 三寸級間の 可逆性點數의 變量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41.393	1	41.393	22.023 ***
연령	219.321	4	54.830	29.173 ***
지역 × 연령	44.332	4	11.083	5.897 ***
오차	334.550	178	1.879	
계	625.207	187	3.343	

*** P < .001

<그림 8> 地域과 年齡別 可逆性點數의 相互作用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아동의 응답자점수가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結果로부터 外家와 內家の 四寸級間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했을 때, 여전히 지역별 차이는 없는데 반해서 年齡別 差異는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 사촌들에 대한 인지점수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사촌들과의 접촉경험의 빈도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四寸級間의 認知點數

지역 \ 학년	국 1	3	5	중 1	3	계
서울	0.00	1.25	3.40	4.20	4.50	2.67(100)
하회, 안동	0.00	1.40	0.60	3.65	5.70	2.5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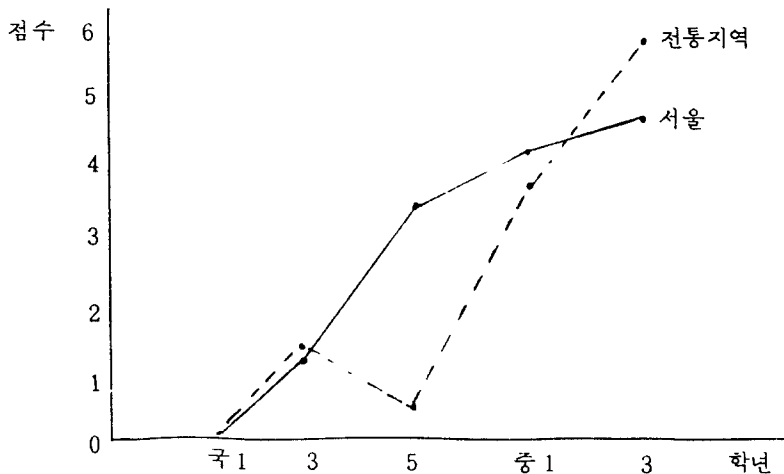
(M = 2.63 , SD = 2.92)

<표 15> 四寸級間 點數의 變量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8.750	1	8.750	1.706
연령	597.153	4	149.288	29.102 ***
지역 × 연령	87.300	4	21.825	4.255 **
오차	913.101	178	5.130	
계	1597.837	187	8.545	

** P < .01 ,
*** P < .001

<그림 9> 地域別 年齡別 四寸級間點數의 相互作用



3) 五寸級間에 대한 認知

五寸級間에 대한 아동의 認知點數는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그 相互作用效果도 또한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수준도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는 서울아동의 점수가 전통지역보다 높았으나, 중3이 되었을 때, 전통지역의 점수가 서울보다 더 높았다(표 16, 17).

그런데 오촌인 신척에게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즉 可逆的 思考에 관한 질문은, <표 18>에서 보듯이 지역차이는 없으며, 단지 연령차이가 1% 수준에서 의미있었다. 지역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는 5% 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역적 인지점수는 증가하는데 서울인 경우 중1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는데 비해서, 안동인 경우 중3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민학교 때 서울보다 낮았던 전통 지역의 인지점수가 중학교에 이르러 서울의 인지점수를 능가하는 것은 親戚에 대한 관심과 親戚들과 접촉했던 經驗의 빈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內家の 四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

지 역	학 년	학 년					계
		국 1	3	5	중 1	3	
서 울 하 회, 안 동	서 울	0.00	0.90	1.60	2.20	2.30	1.40(100)
	하 회, 안 동	0.00	1.15	0.40	1.75	2.70	1.36(88)

(M = 1.38 , SD =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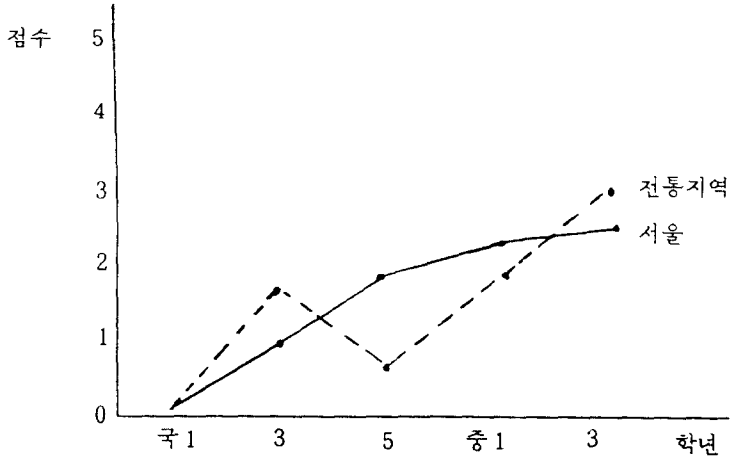
<표 17> 內家の 四寸級間에 대한 認知點數의 變量分析

변 량 원	SSE	df	MSE	F
지 역	2.188	1	2.188	1.384
연 령	130.601	4	32.650	20.660 ***
지역 × 연령	16.462	4	4.116	2.604 *
오 차	281.300	178	1.580	
계	428.425	187	2.291	

* P < .05

*** P < .001

<그림10> 地域別 年齡別 內家四寸點數의 相互作用



<표 18> 外家內 四寸級間의 認知點數

지역 \ 연령	국 1	3	5	중 1	3	계
서울	0.00	0.35	1.80	2.00	2.20	1.27(100)
하회, 안동	0.00	0.25	0.20	1.90	3.00	1.22(88)

(M = 1.24, SD =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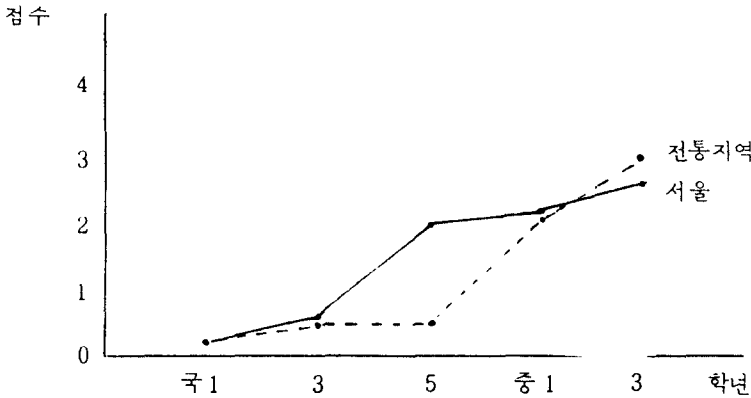
<표 19> 外家內 四寸級間點數의 變量分析

변량원	SSE	df	MSE	F
지역	2.188	1	2.188	1.089
연령	163.895	4	44.224	22.007 ***
지역 × 연령	30.012	4	7.503	3.734 **
오차	357.700	178	2.010	
계	564.745	187	3.020	

** P < .01

*** P < .001

〈그림 11〉 地域別 年齡別 內家四寸點數의 相互作用



본 연구는 八寸級間까지 모든 급간에 관해서 兒童들의 認知水準을 調査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六寸級間 以上の 親戚名에 대해서는 0점부터 8점까지의 點數區間에 1점미만의 무시해도 좋은 點數에 그쳤으므로, 六寸級間 以上の 親戚名은 研究結果에서 제외한다.

V. 結 論

본 연구는 種族科學論者들의 成分分析法과 認知心理學者들의 範疇 및 群概念이 一致하는 親戚名課題를 가지고, 대도시와 전통지역의 兒童들을 對象으로, 調査해 본 바에 따라 다음의 몇가지 結論에 이른다.

첫째로, 親戚名은 年齡에 따른 認知的 發達과 環境의 영향을 볼 수 있는 課題로서 적절한 特性을 지닌다. 즉 친척명의 인지정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지는데 환경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두 變數의 相互作用效果도 보여준다.

둘째로, 具體的 操作期 아동은 群概念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Piaget의 주장은 확인되었다. 그런데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친척명의 四寸級間까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形式的 操作期인 중 1, 3학년 응답자도 五寸級間까지의 친척범위도 알고 있다.

셋째로, 兒童의 親戚名認知樣相에 年齡 및 居住地域變數의 說明力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43 문항의 親戚名認知點數를 모두 합한 총점수는 年齡 및 地域에 따라서, 또 두 변수의 相互作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의 地齡이 增加할수록 認知點數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具體的 操作期에는 傳統的 村落인 하회의 아동보다 서울아동이 친척명을 더 잘 알고 있으나 形式的 操作期에는 안동의 응답자들이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를 細分하여, 親戚級間에 따라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三寸級間에 포함되는 親戚名의 認知點數는 年齡의 增加에 따라서 증가하며, 또한 兒童의 居住地域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보이는데, 年齡과 地域을 同時에 고려해 보면, 相互作用效果가 나타났다. 즉 서울아동이 하회아동보다 친척명을 더 인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아동의 경우, 認知點數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하여, 전통지역인 경우 5학년 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결국 서울아동의 점수보다 높다.

저학년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地域別 認知點數의 差異는 첫째로 도시아동들이 많은 檢査機會를 가지는 데 비하여, 하회의 아동들은 檢査形式의 質問應答方法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둘째로 河回에는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都市로 많이 移住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傳統的인 環境으로서 選定된 하회마을이 오히려 단조롭고 知的 刺激이 적은 環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서 나타난 전통지역의 높은 인지점수는 바로, 傳統地域의 文化的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저학년 때 인지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응답수준 이상의 인지수준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민학교 저학년들의 응답이 인지과제 수행시 검사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중학교 3학년들의 응답은 바로, 대도시와 전통지역주민의 친척에 대한 관심과 접촉빈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四寸級間에 대한 兒童의 認知點數는 年齡變數 그리고 연령과 지역변수의 相互作用에 따라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兒童의 親戚名認知點數도 증가하며, 연령과 지역을 같이 고려해 볼 때 3學年을 分岐點으로, 3학년까지는 인지점수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3학년 이후에는 서울아동의 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하회아동의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아동의 인지점수가 아주 높았다. 이처럼 四寸級間에서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는 있으면서도 지역에 따른 주효과가 없는 사실은, 夫婦家族化하는 도시의 가족들도, 四寸의 친척은 빈번히 接觸할 수 있는 범위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五寸級間에 대한 아동의 인지점수는 地域과 年齡變數, 그리고 두 변수의 相互作用에 따라서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점수도 높았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지점수가 평균적으로 전통지역의 것보다 높았는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서울아동이 더 높은 인지점수를 받았으나,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전통지역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런데 오촌급간에 대한 可逆的 認知에는 지역차가 없이 연령에 따른 차이만 보였으며, 지역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는데 그 양상은 오촌급간에 대한 인지와 같았다.

결론적으로, 친척명은 Piaget의 가정과는 달리, 구체적 조작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획득되어져 그 용어가 의미하는 사람간 관계를 인지하는데 이러한 정신적 조작은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도 점차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群概念이 형식적 조작기 이전부터 점차 발달되는 後期 Piaget 학파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친척명 중에 六寸 以上の 級間은 形式的 操作期 內에서도 점차 인지되는 사실에 비추어, 六寸級間 以上の 親戚名에 대한 認知를 다룬 後續研究가 또 다른 정교한 方法을 使用하여 본 연구결과를 確認 및 補完해 줄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서봉연·유안진,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2.
- 유안진, 아동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3.
- 최재석, 현대가족의 연구. 일지사, 1981.
- Bernstein, B.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 Bruner, J.S., Goodnow, J.J., and Austin, G.A. Categories and cognition. In W. C. McCormack and S.A. Wurm (Eds.), *Language and man*. Chicago: Mouton & Co., 1976.
- Burling, R. Burmese kinship termin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1965, 67(5), 106-117.
- Flavell, J.H.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Jean Piaget*. N.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63.
- Frake, C.O. The ethnographic study of cognitive systems. In W. C. McCormack and S. A. Wurm (Eds.), *Language and man*. Chicago: Mouton & Co., 1976.
- Goodenough, W.H. Componential analysis and the study of meaning, *Language*, 1956, 32(1), 195-216.
- Goodenough, W.H. Componential analysis. *Science*, 1967, 156(9), 1203-1209.
- Greenfield, P.M., and Bruner, J.S. Culture and cognitive growth. In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633-657.
- Hammel, E.A.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comanche kinship termin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1965, 67(5), 65-105.
- Kessler, C. Linguistic universals in anthropological studies of bilingualism. In W. C. McCormack and S. A. Wurm (Eds.), *Language and man*. Chicago: Mouton & Co., 1976.
- Kim, H.K. Korean kinship terminology: A semantic analysis. *Language Research*, 1967, 3(1), 70-81.
- Lamb, S.M. Kinship terminology and linguistic structure. *American Anthropologist*, 67(5), 1965, 37-64.
- Lee, K.K. *Kinship system in Korea*.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Inc., 1975.
- Lounsbury, F.G. The structural analysis of kinship semantics. In N. Nelson and Graburn (Eds.), *Readings in kinship and social structure*.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1.
- Mead, M. Research on primitive children. In C. Carmichael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 N.Y.: Wiley, 1946.
- Parsons, T. *The Social system*. N.Y.: The Free Press, 1951.
- Piaget, J.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28.
- Piaget, J. *Traite de logique*. Paris: Colin, 1949.

- Piaget, J. *Logic and reasoning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6.
- Piaget, J., and Inhelder, B. *The early growth of logic in the child*. N.Y.: W.W. Norton & Company, INC., 1969.
- Piaget, J., and Inhelder, B. *The psychology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 Romney, A.K., & D'Andrade, R.G. Cognitive aspects of English Kin term. In N. Nelson & Graburn (Eds.), *Readings in kinship and social structure*.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1.
- Schneider, D.M. *American kinship: A cultural account*. New Jersey: Prentice - Hall, Inc., 1968.
- Slobin, D.I. *Psycholinguistics* (2nd ed.). Glenview, Ill: Scatt, 1979.
- Spiro, M.E. Cognition in culture - and - personality. In W. C. McCormack and S. A. Wurm (Eds.), *Language and man*. Chicago: Mouton & Co., 1976.
- Spradly, J.P. Foundations of cultural knowledge. In W. C. McCormack and S. A. Wurm (Eds.) *Language and man*. Chicago: Mouton & Co., 1976.
- Sturtevant, W.C. Studies in ethnoscience. *American Anthropologist*, 1964, 66 (2), 99-131.
- Wallace, A.F.C. Culture and cognition. *Science*, 1962, 135 (2), 351-357.
- Wallace, A.F.C. and Atkins, J. The meaning of kinship terms. *American Anthropologist*, 1960, 62 (1), 58-80.